

시름은 마음 속에 있는 것, 무우전으로 오세요!

첫 시집 펴낸 문화관광부 차관 박문석 시인

박문석 시인이 첫 시집 《무우전無憂殿》을 펴냈다. 시집이 나온 직후에는 현직 문화관광부 차관이 시집을 냈다 해서 '우정 출연' 식 소개가 잇따르더니 시간이 좀 지나자 고급 관료가 취미 삼아 쓴 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며 인터뷰 요청이 줄을 이어 문화관광부 차관실은 갑자기 바빠졌다.

무우전은 온갖 시름을 잊게 해주는 집이라는 뜻이다. 절집 화장실에 해우소解憂所 팻말이 붙어 있듯이 그가 단 15분 만에 썼다는 표제작이 실린 무우전을 들면 절집 냄새가 달려 든다. 이 경사진 디지털 시대에 시집 한 권이 온갖 시름을 잊게 해줄 수 있을까 싶지만 적어도 《무우전》을 읽는 동안에는 온갖 시름을 잊을 수 있다. 그것이 시인 박문석의 절제된 방향이다. 이렇다.



한낫 무우전 공터
하얗게 날려 세운
빛줄기만의 열변
만사오딘 그 자리에 번복하고
梅꽃 그림자마저
돌각담 밑으로 숨어버린
아! 숨이 턱 막히는
이 기막힌 전(寂)!(寂默!)
바람도 이 순간 숨이 끊겼었다
—————
《무우전》(전판)

광화문 네거리 언저리에서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온 그의 시에서 절집 분위기가 나는 것을 두고 세인들은 그의 중무실장 경력 등에서 찾는 이들이 많지만 그가 절집 분위기에 익숙한 것은 고시공부를 했던 젊은 시절이었다. 그때 그는, 해인사 약수암에 틀어박혀 절밥 맛에 익숙해 있었다고 했다. 법계는 받지 않았으나, 비구니 암자의 밥맛과 일반 암자의 밥맛이 어떻게 다른지 일찌감치 알고 있는 처지인 것이다.

그의 시에는 디지털 시대의 젊은 시인들에게서 느껴지는 생동감 대신 조지훈 시정신과 흐름을 같이하는 선비정신이 들어차 있다. 그 중에서도 늙은 매화나무를 시제로 삼은 〈고매古梅의 회상 1·2〉는 수백 년 동안 세월을 버텨온 매화나무의 삶을 한 여인의 삶으로 치환시킨 시인의 내공을 엿보게 해준다. 이를테면 '한낫/텅 빈 산방山房/바람도 마을 나가/노매老梅 혼자/사방 밝히며/전설로 서 있다' (〈고매의 회상·1〉 일부) 같은 구절이 그렇다. 시인에게 매화나무는 하나의 정신이라고 시인은 말했다. 우선, 북풍한설에 피어나는 꽃도 매화이고, 이른 봄 언 땅을 뚫고 올라오는 꽃도 매화라는 것이다. 이들 수백 가지의 종류별 매화 이름을 박문석 시인은 줄줄 꿰고 있다. 6백 년 수령인 산청 단속사의 정랑매, 지금은 죽어 없어진 도산서원의 도산매, 선암사의 선암매...〈고매의 회상〉의 고매는 선암매가 시상에 박혀 나온 작품이다. 이런 시가 나오는 까닭은 도심생활을 하면서도 시상이 떠오르면 시상 수첩을 꺼내 들고 광화문이 매화마을인 양 눈을 지긋이 감기에 가능한 것이다. 눈을 감으면 〈고매의 회상〉 연작을 쓰게 해준 선암사 매화나무가 말을 걸어오는 것이다.

"본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그때마다 공무원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시 쓰는 일을 부업이라고 대답한 적도 없습니다. 시는 열망의 산물이고, 그 열망을 시로 토해내지 않고는 못 배기겠는데 어떻게 부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가 그를 놓아주지 않는 것은 인간의 번뇌와 욕망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르이기 때문일 거라고 그는 말했다. 소설에 대한 욕망도 있지만 현대사의 격랑을 한평생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보니 소설을 붙잡고 있을 시간이 없어 아직은 시로 만족하지만, 그렇다고 시가 소설보다 하위 장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이다. 원고지로 옮기는 시간이 짧을 뿐이지 시 한편이 나오는 것은 오랫동안의 명상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통 행정 관료인 그는 의외로 문단의 정통 시인들과 막역한 사이이다. 그러기에 시인 이근배, 황지우, 문학평론가 김재

홍 씨가 그의 시집에 서문을 쓰고 해설을 썼는데 그들 역시 헤
 실해실 상찬에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황지우 시인은 마음에
 들지 않을지도 모르는 소리까지 포함해서 전문을 다 실어줘
 고마워했다고 한다.

“미당 선생이나 지훈 선생 같은 분들의 시세계는 참으로
 대단합니다. 미당은 친일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시문학
 사로 보나 언어의 마술적 측면에서 보나 1백 년에 나올까 말
 까한 시인이란 말에 동의하고, 지조와 절개가 그대로 드러나
 는 지훈 선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분을 존경하고
 두 분의 시 몇 편은 외고 있습니다.”

그의 시에서 도회지 풍경이 드러나지 않고, 대부분의 작
 품이 짧은 것은 이런 점에서도 연유하는 것 같다. 짧고 싶어하
 면 짧아지는 게 사람인 까닭이다.

가을이 구겨진 채
 댕들 위 잔광에 즐기고 있다
 일몰의 수놓인
 골 기둥은 시름의 강
 먼 옛날 이미 건너 노파 하나
 뒷마루 위 잔광에 즐기고 있다
 〈가을과 노파〉전편

첫 시집을 내놓고 어린애처럼 부끄러워하는 현직 차관
 은 정작 '시집을 내기는 했으나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이 많
 다' 면서도 여기로 쓴 작품으로는 보지 말아달라는 기색이 역
 려했다. 하지만 집안은 도무지 시문학 분위기가 안 돼 있다며
 이 얘기를 꼭 써달라는 듯이 말했다.

“서른 여섯에 늦장가를 들다 보니 큰아들이 올해 수능시
 험을 친 데다 작은아들은 늦둥이여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입
 니다. 그러니 아내마저 아이들 뒷바라지 한다는 핑계로 가장
 이 시집 낸 것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습니다.”

하긴 이런 멋스러움이 시인다운인데, 그는 요즘 시인들



이 술 한 동이를 비우지 못하고 디지털적인 시 쓰는 데만 열중
 이라고 일갈한 고은 선생의 말은 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런
 생동감이 그의 시 〈돌〉에서도 드러난다. 무생물의 시상 돌에
 대해 그는 ‘못 산 자들의 부리에/쉬임없이/오르고 채여도/보
 시布施려니 하고/비운 마음은/원래 그 자리에/그래도 고스란
 하구나’ 라고 말한다. 이런 시상을 얘기하며 그는 ‘늦둥이를
 두고 보니 매를 들었다가도 웃음이 나와 좋아리 한 대 못 치고
 산다’ 며 전화 연결된 스님을 향해 ‘출판 기념회에 스님도 꼭
 오셔야 한다’ 고 신신당부했다. **한**

취재 임동현기자 | 사진 박신우기자